

# 이낙연 대망론 탄력받나... '총리 징크스' '영남 후보론' 과제

첫 시험대 코로나 극복, 야당 협치, 보선 결단

이회창·고건 등 총리 잔혹사...주류 관계 어떻게

뿌리 깊은 '영남 후보론'...1위 이재명 역전 관건

29일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당대표직은 대선 가도에서 큰 교두보인 동시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한 명의 의원이자 당원 신분으로 현안과 거리를 뒤엎지만 이제는 거대 집권당의 지휘봉을 쥐고 매 순간마다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 ◇첫 과제, 코로나 2차 재난 지원금·협치·재보선

이 대표의 첫번째 시험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제위기 대책이다.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정정에 보조를 맞춰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신중론을 유지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선별 지급 방침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민의 극복"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추석 등 코로나 민생 당정협치와 사회안전망 확충 의지를 밝혔다.

야당과의 협치도 과제다. 전임 이해찬 대표 시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과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 국회 상임위원장직 싸움과 부동산법 처리 등 여권의 독주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그에 대비되는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절실하다. 이낙연 대표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도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이회창·고건 등 총리 잔혹사...정권 주류 관계 어떻게

국무총리 출신 여당 주자들의 '징크스'를 넘어서는 것도 관건이다. 문민정부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대쪽' 이회창 전 총재는 여권 후보로 대세론을 탔지만 김영삼(YS)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국회의원의 후보의 대선 비자금 수사 연기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이 전 총재는 3김 청산을 명분삼아 YS 탈당을 요구했고, YS는 탈당 후 이인제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원했다. 결국 그는 15대 대선에서 보수 분열로 39만표 차로 김대중 후보에게 패했다.

참여정부 초대 총리인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때 성공리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대선후보 이 고건 전 총리를 "실패한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하자 버티지 못하고 한 달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는 충청권 유력 주자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총장 시절인 17대 대선 때는 현 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될 정도였다. 그러나 입각 후 진보·보수 어느 쪽에도 확고한 지지층을 마련하지 못했

고, 대권 도전도 좌절했다.

### ◇'영남 후보론' 넘어설까...1위 이재명 역전 방안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전남지사를 역임한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지지층 이반 경향이 나타날 수록 호남표를 모을 수 있는 이 대표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계 정당에선 대선 승리를 위해 야당세가 강한 영남 출신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영남 후보론'이 뿌리 깊다. 이와 관련해 그간 여론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 대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건 큰 이점이다. 이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약으로 '가덕신공항'이 적합하다며 PK 민심에 리브콜을 보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 설정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대조적으로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역동성이 강점이다. 지지율도 이 대표 지지율은 점차 하락해온 반면, 이재



명 경기지사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로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20~22일 실시한

공동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4%로 앞선 반면, 이낙연 대표는 22%에 머물렀다. 한국갤럽의 11~13일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19%, 이 대표는 17%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소병철 의원 "형사·공판검사 중용 폄하말아야"

"권위주의 정부시절, 공안·특수 발탁 시엔 잡음없더니" 비판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를 중용해야 하며 형사·공판부의 중용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절대다수가 형사·공판부다.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발탁되는 것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특정 라인의 발탁이나 배제로 보는 논란에 대한 비판적 지적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나 특수부가 중용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시비가 없더니, 검찰의 절대 다수인 형사·공판부를 중용하니까 이런 시비가 걸린다"면서, 검찰 인사

를 정치적 인사로 연결시키는 일부 시각이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소 의원은 추미에 법무부장관에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발탁되는 것이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게서는 고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민주 이형석 의원, 최고위원 시절 '지구 5바퀴 반 달렸다'

"힘들기보다 가슴 벅차"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은 30일 "지구 한 바퀴가 4만km라고 하는데,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지구 5바퀴 반을 씬 없이 달렸다. 힘들기보다 가슴 벅찬 일이 더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와 추미에 전 대표 체제에서 두 번

에 걸쳐 약 32개월 동안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에 걸쳐 지역구인 광주와 서울을 오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18석 전석을 차지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전체 의석의 60% 이상(현재 176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도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 의원은 "되돌아보면 두 번의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동안 힘들기보다는 가슴 벅찬 일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